

전일동향

전일대비 9.90원 상승한 1,443.00원에 마감

2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9.90원 상승한 1,443.0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.70원 상승한 1,436.80원에 개장했다. 상승 출발한 환율은 유로화, 약세 및 달러 지수 상승에 연동해 상승폭을 확대했다. 또한,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 등 수급 부담에 따른 상승 압력 지속되며 1,443.00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9.3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65.61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36.80	1448.80	1434.40	1443.00	1439.60
	엔화	961.60	967.91	959.94	963.92	-
	유로화	1502.75	1513.86	1500.72	1501.45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0	-4.82	-12.2	-26.74
	결제환율(수입)	0	-4.02	-10.5	-23.38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트럼프 관세 위협에...1,44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43.00) 대비 7.70원 상승한 1,448.2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트럼프 관세 인상 발언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달러 강세에 상승이 예상된다.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 캐나다,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밝혔지만, 하루만에 해당 관세를 당초 일정대로 3.4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. 또한 중국에는 10%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. 트럼프 관세 위협에 달러는 0.69% 급등한 107.23pt를 기록했다. 역외 위안화 환율은 7.3위안 부근까지 속등했고, 유로/달러는 0.77% 급락하며 1.04달러선에 근접했다. 뉴욕증시는 나스닥이 2% 이상 하락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부진했다. 이에 국내증시에서도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아울러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미 PCE 물가지수 경계에 따른 달러 강세 분위기 지속은 환율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, 수출업체 네고, 당국 미세조정 경계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45.00 ~ 1454.6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753.55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.7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3239.5, -193.62p(-0.45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15.18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282 억원